

# ‘교권 보호·학폭 예방’ 법률지원단 뜬다

### 광주교육청-광주변호사회 협약 법률상담·자문·분쟁 조정 등 교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광주시교육청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불법 촬영 피해 사례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모두 604건에 달했다. 매년 151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의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적갈취 및 협박’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광주변호사회를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요 지원내용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자문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화해·분쟁 조정 ▲법적 분쟁 관련 컨설팅 및 문서검토·교정 ▲기타 법률 자문 및 상담 등을 논의했다. 시 교육청은 이같은 협업 체계 구축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원단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법률 지원을 위한 준비와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지원단 대상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역별 담당 변호사, 학교장, 업무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권역별 워크숍도 운영한

다. 워크숍에서는 법률지원단의 취지와 역할을 안내하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진용태 회장은 “광주시교육청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변호사회를 찾아주셔서 고무적”이라며 “변호사회도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추진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교권이 더욱 존중받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e-모빌리티 전문 넓히기

### 동강대, 국제모빌리티 산업전 e-모빌리티 엑스포 등 견학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미래 지능형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 인력 양성과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해 시야를 넓히며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동강대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단장 정세용)은 최근 e-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견학 프로그램을 잇따라 진행했다. <사진> AI융합기계과, AI융합전기과, AI융합드론과 학생들은 최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제모빌리티 산업전’을 돌아봤다. e-모빌리티는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운송 분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와 이륜차 등 1-2인용 이동수단이다.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5년 내 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학생들은 모빌리티 산업전을 돌아보며 최신 동향 파악과 정보습득을 통해 관련 분야 취업 관심을 높였다. 또 모빌리티 분야 취업 전략과 로드맵부터 입사서류 작성, 전문가 면접 스킬 등 통합적인 취업교육을 받았다. 견학이 끝난 뒤 소감을 나누는 간담회도 가졌다. AI미래자동차과 학생들은 지난 14-16일 영광에서 열린 e-모빌리티 엑스포를 찾았다. 동강대는 지자체와 활발한 협력을 통해 정부 사업 등을 적극 수행, e-모빌리티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에 광주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참여 중인 동강대는 공학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미래형 e-모빌리티 분야 전문가를 기르고 있다.

호남지역 사립전문대학 최초로 선정된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재학생들이 e-모빌리티 분야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 교육부 주관의 ‘2022년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도 선정돼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직업계고교와 손을 잡고 미래형 운송기기와 에너지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업 취업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정세용 단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견학 행사에 참여해 모빌리티 분야 시야를 넓히고 사후 교육을 통한 취업 역량까지 강화, 신산업 핵심인력 양성과 융복합 기술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신대, 우즈베키스탄서 ‘한국어 봄’ 조성

### 교육기관 방문 교류 협약 체결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한국문화 페어 큰 인기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제1회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어 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동신대에 따르면 이주희 총장과 오성목 국제교육원장 등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동신대는 이번 방문 기간 지난해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교수를 파견·지원하고 있는 우르겐치국립대학교와 함께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 ▲내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와 K-POP ▲한국어를 배워서 이루고 싶은 꿈 등을 주제로 치러진 대회에는 우르겐치국립대 재학생 수십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에 앞서 진행된 한국문화 페어(전시회)에서는 현지 학생들이 한복과 우즈베키스탄 전통의상을 입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소개하고 김밥을 만드는 행사 등이 진행돼 인기를 끌었다.

동신대는 우르겐치국립대 내 한국어학과 신설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방문단은 또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 이어 교육부가 운영하는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을 찾아 동신대 해외봉사, 한국교육원 한국어교사 연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우르겐치국립교육대학원과 학생·교수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호라이즘 교육청과는 학생 교류, 한국어 강사 파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정부 차원에서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12개 지역에 교육대학교를



이주희(왼쪽) 동신대 총장이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국립교육대학원과 학생·교수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동신대 제공>

신설, 교육학부와 외국어학부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어 등 외국어 강사와 교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고등학교 수도 늘고 있으며, 한국어 공부와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신대는 이에 따라 현지 대학교,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적·물적 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는 동시

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단순한 업무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교수 파견, 한국어학과 설립 등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우수 인재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장애학생 진로드림’

### 전남교육청, 금·은·동 수상

전남교육청은 최근 울산에서 열린 ‘2022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에서 지역의 장애학생들이 금상과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발달장애 학생 194명이 참여했으며 전남 학생들은 가족공예, 바리스타, 과학상자조립, 사무지원, 외식서비스, 제품포장 종목에 참가했다.

순천공고는 특수학급 외식서비스에서 금상(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가족공예·사무지원 종목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함평영화학교는 특수학교사무지원 종목에서 금상, 나주이화학교는 특수학교 외식서비스 종목에서 은상을 받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교육 캐릭터 찾아요”

### 전남교육청 31일까지 공모

전남교육청이 오는 31일까지 ‘전남교육 마스코트 공모전’을 진행한다.

전남교육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적이며 친근한 캐릭터의 디자인과 해당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과 일반인 2개 부문으로 나눠 운영하며, 팀 또는 개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청소년 부문은 팀 구성원 모두가 만 18세 이하(2004년 1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청소년·일반인 부문별로 최우수상 1 작품, 우수상 1 작품, 장려상 5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청소년·일반인 부문 최대 상금(품)은 각각 70만원과 1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교육청 누리집(www.jnedu.kr)을 방문하거나 홍보담당관실(061-260-0808)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데크의 세대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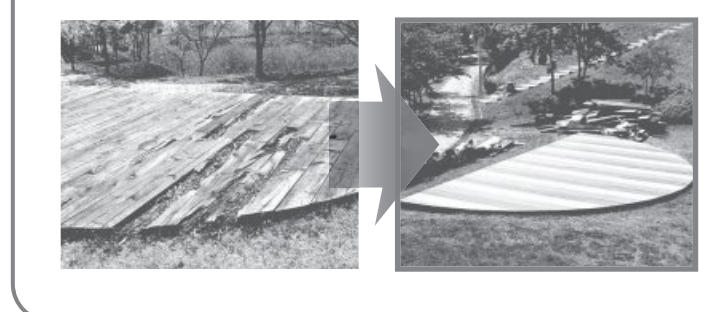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장지구



###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